

SK가스, 2월 LPG 판매가격 동결

프로판가스 906원에 부탄가스 1307원 ... 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기업들이 충전소에 공급하는 2월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

SK가스는 LPG의 2월 공급가격을 1월과 마찬가지로 프로판가스는 kg당 906.26원에, 부탄가스는 kg당 1307.25원,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리터당 763.4원에 묶어두기로 했다고 1월30일 발표했다.

SK가스와 함께 국내 2대 LPG 수입기업인 E1도 2월 공급가격을 프로판가스 902원, 부탄가스 1303원,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리터당 760.95원으로 책정해 각 충전소에 통보했다.

SK가스 관계자는 “LPG 국제가격이 오르는 등 소폭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동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PG 수입기업은 Saudi Aramco가 LPG 가격을 통보하면 매달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30>